

1면에서 이어집니다

로 믿음이 가는 든든한 자식들이야"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씀이 당시에는 이해 안 갔다. 지금은 '아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더욱 더 눈물 나도록 우리 주님이 그리웠다. 주님을 모시고 함께 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했다.

요즘 세상에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오직 여기 승리제단밖에 없다. 인문학의 출발점이 불신(不信)의 존재인 마귀 영에게 포로가 된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과묵적인 형국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남북분단의 모습이며 북한의 핵문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핵문제보다 더 위험한 골치거리라는 자존심 마귀이다. 자존심이 발동하면 핵문제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만물을 죽임과 썩힘과 분쟁으로 몰고 가는 자존심 마귀를 박멸소탕하고 하나님 마음인 양심 하나로 정신 통일하라. 그러면 온 나라, 온 겨레가 분단에서 통일로, 갈등에서 화합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불사영생의 통일대박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전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계는 지방선거철이라 새 인물, 새 정책, 새 정당으로 분주하다.

하지만 하늘 아래 승리제단 진리 이외에 새로운 이념은 없다. 남북통일, 민생해결, 노령화, 저출산, 실업 및 각종 사회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승리제단 진리 안에 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승리제단의 진리가 중심이 되어 무너진 하늘나라가 회복되는 시점과 일치할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천지공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느냐에 따라 통일의 시기는 당겨지기도 늦춰지기도 할 것이다.

승리제단의 혁명은 피를 바꾸어 불사영생의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는 혁명, 거듭난 하나님들이 온 백성이 되어 천하통일 태평성세를 누리는 에덴동산을 회복하여 영생복락의 천지개벽을 이루는 혁명이다.

지혜, 지식, 삶에도 두 가지 상반된 길이 있다. 삶과 죽음의 길이다.

마귀 영, 자존심의 영역에서의 지식은 살생의 무기다. 이들을 어리석은 세뇌교육으로 서서히 대중을 죽인다 하여 '완만한 도살'이라고 한다. 삶을 영생의 삶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길, 지혜, 지식, 그것이 바로 승리제단의 진리이다.

우리의 뜨거운 가슴에 승리제단의 미래가 달려 있다. 떨치고 나가서 당당하게 귀중한 진리를 전하자.*

뉴스 속의 뉴스

예수가 결혼했다는 증거 또 나와

예수가 결혼하여 자녀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자들만 모르는 공연한 사실이다. 최근 보도된 기사(한겨레 신문 4월 11일자)에 따르면 '예수의 부인'이라고 언급된 파피루스 조각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 고대에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관련된 한겨레 신문 기사에서는 뉴욕타임스를 인용하여 "컬럼비아대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의 전기공학·화학·생물학 전공 교수들이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문제의 파피루스 조각은 4~8세기 무렵 작성된 파피루스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제임스 아틀리 컬럼비아대 교수(전기공학)는 "문서에 사용된 잉크의 화학적 구성을 마이크로-라만 분광기를 이용해 분석한 뒤, 기원전 400년부터 기원후 700~800년 사이에 작성된 35~40건의 문서를 비교했더니 정확히 일치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가로 약 8cm, 세로 약 4cm 크기로 '예수의 부인 복음'으로 알려진 이 파피루스 조각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부인...' 이란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한다.

예수가 결혼했다는 내용이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

어졌다고 하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요 2:9-10)"라고 하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객들의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혼주 측이므로 예수의 어머니가 혼주요 예수가 신랑임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또한 유대의 구전 관습법(미슈나)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랍비(교사, 율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랍비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부터 예수를 랍비라고 호칭하며 쓰고 있다.

당시 유대 관습은 남자가 결혼 적령기 이후에 독신 생활하는 것은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1세기 후반의 어느 유대교 작가의 기록에는 고의적인 독신 생활을 살인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만일 예수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관습상 아주 특별한 일로써 한 번은 성경에 언급되었을 일이다. 그러나 예수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이 한 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성령과 성배 343쪽, 행림출판사).

이러한 점을 볼 때 예수가 결혼한 것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을 영어와 일어로 전도합시다

마귀의 최고 무기는 무엇인가
What is Satan's great weapon?

魔鬼の最高の武器は何ですか

- 마귀의 최고 무기는 모방력이다.
- Satan's great weapon is the power of imitation

魔鬼の最高の武器は模倣の力です.

- 마귀는 창조력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태초부터 모방력을 가지고 있었다.

Although Satan didn't have the power of creation, he had the power of imitation from the beginning instead.

魔鬼は創造の力を持ってなかったが、代わりに宇宙の初めから模倣の力を持っていました.

- 마귀는 뛰어난 모방력으로 하나님을 포로로 사로잡은 대단한 모방자였다.

Satan was a great imitator and captured God by his imitative power.

魔鬼は優れた模倣の力で神様を生け捕りにしたすごい模倣者でした.

- 하늘나라 에덴동산을 점령하는 데 실패한 마귀는 6천년 전 아담과 이브 앞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나타났으며 아담과 이브가 이를 바라보는 순간 마귀 영에게 점령당하였다.

Satan, who failed to occupy the Kingdom of Heaven, appeared before Eve and Adam in the likeness of God about 6,000 years ago. The moment they looked at Satan, they were captured by the Spirit of Satan.

天国、「エデンの園」を占めるのに失敗した魔鬼は、6千年前、アダムとイブの前に神様の姿で偽装して現れたし、アダムとイブがこれを見る瞬間、魔鬼の霊に占められました.

속담 속의 영생학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향상 말조심을 하라는 뜻의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에는 과학적으로 파동의 굴절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다. 음파는 공기를 통과할 때 온도에 따라 다른 속도를 가진다. 온도가 낮을수록 음파의 전달속도는 느려지고, 반대로 온도가 높으면 음파의 전달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므로 지표면이 태양열을 받는 낮에는 음파가 새가 듣는 상공 쪽으로 휘어지고 밤에는 상대적으로 지면 쪽으로 휘어져 쥐가 더 잘 듣게 된다.

그러나 사실 이 속담 속에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같은 의미인 영미권 속담 'the wall have ears.(벽에도 귀가 있다)'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이 빛이요, 빛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1:1)라는 성경 구절은 우주

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빛 자체가 하나님인데 우주 만물은 빛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즉 온 우주에 하나님의 신이 계신 것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는 듣는 이도 보는 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짧은 생각이지만 실은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의 영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다. 빛이 하나님이고 공기 속의 중성자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들으며 벽에도 귀가 있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신이 언제 어디서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귀와 공존 중인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시다는 것을 밝혀야 참 과학인 것이다.*

참고문 기자

우리말 바꾸기

‘밖에’와 ‘같이’의 띄어쓰기

‘밖에’와 ‘같이’는 흔히 띄어쓰기 오류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들의 품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즉, ‘밖에’가 ‘그것 말고는’, ‘뿐’의 뜻을 가지면 앞의 말에 붙여 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하나밖에 없다.(O) / 가는 수밖에 없다.(O)

만약, ‘뿐’의 뜻을 지니지 않은 ‘밖’은 ‘이외에’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랜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예) 팔이나 그밖의 곡류(X) / 철수는 문 밖에도 없었다.(O)

이것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밖’을 ‘뿐’으로 바꾸어 보았을 때 의미가 통하면 조사로서 붙여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다음으로, ‘같이’의 경우인데 이 경우도 비슷하다. ‘같이’가 ‘처럼’의 뜻을

가지면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사로서 쓰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예) 촛날같이(O) / 우리와 같이 갈까?(O)

그러나 ‘같이’와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은 조사가 아닌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다. 따라서 ‘같은’은 언제나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예) 결코 혼인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O) / 너같이 바로 같은 놈은 처음 봤다.(O)

참고로, 우리나라의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렇게 9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조사만 붙여 쓰고 그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띄어쓰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승우 기자

전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나'라는 의식이 죄요, 마귀이므로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양심의 영, 생명의 영)이 석방되어 나와서 나라는 의식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은 것이요 부활함을 입은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가 도통한 상태이다.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은 인류 최초로 도통한 분이다.

-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마귀다
-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죄다
-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사망의 요소다
- '나'라고 하는 주체 영이 선악과다

조희성 이긴자께서 전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다
. 이것이 도통이다